

직업군인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외로움과 자기상에 미치는 영향*

김 정 은¹⁾

육군보병학교

박 회 현²⁾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는 직업군인의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외로움과 자기상으로 본 심리사회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직업군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326명이다. 자료분석을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직업군인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각각의 불신행동은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심과 가르침의 양육행동은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부모의 불신행동은 자기상으로 본 심리적 발달 요인에 부정적인 자기상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및 친구관계, 대처능력과 신체상 등 사회적 발달 영역에도 부정적인 자기상을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각된 부모의 관심 행동은 정서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인 아버지의 존중 행동은 친구관계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발달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부모 모두의 관심행동은 가족관계와 적응력에 긍정적 발달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군인의 부모 양육행동은 자아정체감의 형성시기인 청소년기 자녀의 외로움과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발달 영역의 자기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다.

주요어: 직업군인 자녀, 부모양육행동, 외로움, 자기상

* 이 논문은 2011년도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임.

1) 육군보병학교, 군무원

2)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전공, 조교수 (E-mail : gpark25@hanmail.net)

I. 서론

부모의 양육행동은 한 개인의 성장과정을 통해 심리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정옥분(2004)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소년이 부모와 갖는 관계는 아동기에 가졌던 부모와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급속한 신체적 성장은 부모의 체벌과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부모의 권위는 도전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의 부모·자녀관계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또한 인지발달로 인한 청소년기의 변화 또한 부모와의 갈등요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발달특성과 청소년기의 부모 개인 특성 요인을 고려한 양육행동을 갖는 것은 청소년기의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특히 직업군인 가정의 경우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이동이 잦고, 벽오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에게 열악한 교육환경 및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양영순(1995)은 직업군인의 자녀는 군인의 특수한 근무 환경과 그 요인들에 의하여 그들의 성장환경면에서 민간인 생활을 해야 하는 등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교육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직업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김현주와 홍두승(1994)에 따르면, 중학교 이상의 자녀를 가진 군인가족은 자녀의 교육기회의 확장을 위해 자발적인 별거를 결정하고 있어 아버지의 부재로 아버지에게 집안일과 자녀양육과 같은 일상적인 일의 일부를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하

기 힘들다고 하였다.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안정적인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청소년기 자녀에게 가정에서의 부모 양육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심리 발달적으로 외로움이 발생할 높은 위험성에 있는 시기이며, 외로움은 다른 시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더 자주 발생한다(Brage & Meredith, 1993; Jong-Gierveld, 1987; Medora & Woodward, 1986; Peplau & Perlman, 1982).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기대와 과중한 성취압력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심한 부담감과 소외감을 경험한다. 특히 핵가족화와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는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를 증가시키게 되어 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이는 친구나 학교생활에서 직면하는 과중한 학업성취 압력과 형식적인 대인관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담감과 소외감, 외로움을 경험하게 한다(이유미, 1994). Russell과 Peplau(1978)는 외로움이란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에서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통합감이나 공동체감이 부족한 것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불유쾌한 정서상태가 개인 및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와 관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외로움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외로움은 청소년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온 연구들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Lyons, 2004). 외로움은 청소년의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Brennan & Auslander, 1979; Lyons, 2004), 불안과 우울(Moore & Schultz, 1983; Ohannessian, Lerner, Lerner & Eye, 1996), 섭식장애(Stewart, 2004), 심지어 자살과 자살에

대한 생각(Rokach, 2001)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외로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적응을 위해 외로움과 관련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청소년기 외로움의 원인은 부모, 가족, 또래와 친밀감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거나(Rew, 2001),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친밀감의 부족,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관계 지지망의 부족 혹은 상실과 소속감의 부족 등이다(김영숙, 1992; Russell, Peplau & Cutrona, 1980). 또한 청소년은 아동기나 성인기보다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를 많이 겪으며 가정, 학교생활 및 진로 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권오숙, 문성호, 2007; 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

직업군인 자녀의 경우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급격한 발달 변화와 더불어 아버지의 직업적 특수성에 따른 또 다른 변화를 감당해야 한다. 직업군인은 평균 2년에 한 번 씩의 이사로 인해 군인가족 중 누구보다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이사가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현실에서(강학성, 1999), 군인 아버지들은 자녀와 관계하는 시간의 부족함에 어려움을 가지며,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해 별거를 하기도 한다(이재평 외, 2008). 이렇게 아버지가 가정에서 부재되어 있는 직업군인의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들 역시 이는 스트레스로 작용된다. 자녀들은 슬픔이나 분노, 우울증과 같은 감정을 호소하고 안정감이나 기쁨을 주던 어떤 것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Gonzalez, 1970). 또한 이사를 가족이 함께 하는 경우에도 이사를 할 때마다 군인 부인과

자녀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사회적 고립감을 느껴야 하며, 특히 그 자녀들은 반복적인 또래관계 해체와 교육기관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김현주, 홍두승, 1994).

오기택(2000)에 따르면, 군인가정 자녀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가정과는 다른 양육환경, 빈번한 이사 경험과 벽오지 생활 등의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공부압력으로 성격과 심리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러한 공부압력으로 군 자녀의 전체 심리사회적 문제 성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직업군인의 청소년기 자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압력에 시달리며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 박영배(1991)와 임익호(2009) 등은 직업군인 자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는 전학경험이 많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는 이사 횟수가 많으며 고등학교 시기에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기간이 높아 잦은 이주 및 장기간 별거 등 가정 구조적 환경의 불안정과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가정보다 부모 역할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자녀의 양육과 심리성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Baker, Fagen, Fisher, Janda과 Cove(1967) 및 안민국(1983) 등은 직업군인 자녀들은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더 남성적 이려고 노력하고 친구들과 부적응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군인가정의 자녀는 일반인 자녀에 비해 친구관계가 좋지 않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직업군인 자녀의 잦은 이동 경험이 정서적인 측면이나 대인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직업군인 자녀는 학교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잦은 전학으로 인해 새로운 전학지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심적 부담과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친구이기 때문에 친밀하고 오래 지속될 친구관계 보다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박은아, 2005; 송규탁, 2009; 안민국, 1983; 이성열, 2002). 따라서 아버지 직업에 따른 특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직업군인의 청소년기 자녀가 겪는 대인관계에서의 소외감과 외로움은 다른 직업 가정의 자녀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의 자기상에 대해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급격한 발달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에 있어 적절한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발달적 위기를 해결하고 과업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지향과 김광웅(2005)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있어 애정과 적절한 통제를 갖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건강한 자아를 발달시키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Weiss(1973)는 만족스러운 관계의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등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존재함으로써 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Sabatelli와 Anderson(1991)은 다른 행동발달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외로움은 부모자녀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고 대신 또래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속적인

로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등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및 심리적 안녕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Rice(2001)는 부모와 단절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또래와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하여 고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외로움에 취약한 직업군인 자녀가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 영역에 긍정적 자아상을 갖는데 있어 부모역할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 자녀의 외로움 및 자아상과 부모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부정적 발달을 초래하는 직업군인 자녀의 청소년기 외로움에 대한 증가 혹은 감소 요인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양육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영역의 자기지각은 사회적응과 대인관계를 예측해주는 요소로서 부모의 애정 어린 양육과 수용적인 분위기와 같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최영희, 1999).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지은, 1998; 김용석, 1999; 유성경, 2000). 이민정(2008)은 직업군인 아버지의 부재 여부보다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직업군인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정서상태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기택(2000)은 직업군인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직업군인 자녀의 비행 및 외현화, 내재화 등 문제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에 민주적 양육태도는 군인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군

인 아버지가 자녀에 통제적이고 거부적일수록 일반 가정 자녀들보다 더 직업군인 자녀들이 비행과 공격성 같은 외부로 표출되는 문제성향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임정하(2006)는 부모의 양육행동 결과 청소년이 부적응이나 이탈과 같이 부정적인 발달특성을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는 자녀양육행동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부정적 발달결과의 감소뿐 아니라 긍정적 발달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모 양육행동의 특성을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 부적응적인 발달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외로움에 대한 영향 외에 직업군인 자녀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 영역의 긍정적 자기상을 지니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가 있다(Kagan, 1971).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적 잘 대해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가영희, 조민자, 임성우,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 자녀의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청소년기의 외로움과 자기상을 통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직업군인 자녀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자기상을 형성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에서 효과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직업군인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들을 지원하는 다각적 프로그램의 개발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인의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직업군인의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직업군인의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기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직업군인의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기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직업군인가족의 대표적 밀집지역인 충청지역의 G시와 전라지역의 J군에 아버지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는 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이다. 2개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2개교씩 총 4개교에서 아버지가 직업군인인 가정의 중학생 자녀 200명과 고등학생 자녀 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360부를 회수하였다. 이 가운데 확실적인 응답 및 누

락된 응답이 많은 경우를 제외한 326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40.8%(133명), 여학생 59.2%(193명)이다. 연령은 13세 22.8%(74명), 14세 20.0%(65명), 15세 34.5%(112명), 16세 21.5%(70명), 17세 1.2%(4명)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55.8%(182명)과 중학생 44.5%(145명)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할 때부터 현재까지 전학 횟수는 없음 9.3%(30명), 1회 14.2%(46명), 2회 12.7%(41명), 3회 16.7%(54명), 4회 15.4%(50명), 5회 15.4%(50명), 6회 8.6%(28명), 7회 3.7%(12명), 8회 1.2%(4명), 9회 1.9%(6명), 10회 이상 9%(3명)이다. 직업군인인 아버지의 계급 구성으로는 장교가 68.8%(224명), 부사관 24.6%(70명), 군무원 4.7%(15명), 기타가 1.9%(6명)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상 8.4%(27명), 중 89.1%(286명), 하 2.5%(8명)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에 있어 아버지 학력은 대학원 이상이 48.4%(153명), 대졸이 43.7%(138명), 전문대졸 4.7%(15명), 고졸 이하 3.2%(10명)이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원 이상이 6.9%(22명), 대졸이 64.0%(203명), 전문대졸 6.3%(20명), 고졸 이하는 22.7%(72명)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는 39.1%(127명),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는 60.9%(198명)이었다. 아버지와 동거하는 학생은 69.7%(225명), 비동거 학생은 30.3%(98명)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으로는 5명 이상 19.8%(64명), 4명 74.4%(241명), 3명 5.9%(19명)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지각한 자신의 학업성적은 중 64.8%(21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 23.5%(76명), 하 11.7%(38명)이다.

2. 측정도구

부모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정하와 정옥분(200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청소년의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별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 불신, 존중, 가르침, 관심의 4개 하위요인으로 아버지 양육행동 30문항과 어머니 양육행동 32문항으로 총 62문항이다.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방식으로 각 하위영역의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양육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및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외로움

청소년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가 제작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박선영과 도현심(1998)이 청소년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총 문항 수는 20문항으로 10문항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 여부를, 나머지 10문항은 불만족을 질문한다. 즉,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여부에 관해 각각 10문항씩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자기상

직업군인 자녀의 자기상으로 본 심리사회적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Offer의 자기상 검사

표 1.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내 용	문항수	신뢰도
한 국 적 부 모 양 육 행 동	부	불신	자녀의 말이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적하고 관여하며 자녀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를 움직이려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11	.91
		존중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녀의 의견이나 태도를 이해하고자 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자녀의 역량과 가능성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과 관련된 내용	8	.87
		가르침	자녀에게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가르치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기초질서나 공공의식을 깨닫도록 이르는 등 인격교육과 관련된 내용	7	.74
		관심	자녀가 방과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있으며, 자녀의 교우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등 자녀의 생활 및 행동과 관계된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	4	.62
	모	불신	자녀의 말이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적하고 관여하며 자녀의 뜻이 아닌 어머니의 뜻대로 자녀를 움직이려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12	.92
		존중	자녀의 감정이나 의견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며 자녀를 귀하게 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9	.83
		가르침	자녀에게 대인관계의 예의와 배려를 가르치고 일상생활에서 사회기초질서나 공공의식을 깨닫도록 이르게 하며 자녀에게 인격교육을 시키는 것과 관련된 내용	6	.84
		관심	자녀를 정성으로 대하며 자녀의 하루일과 및 학교생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	5	.77
	외로움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을 평가	20	.93
	자 기 상	심 리 적 발 달	정서상태	우울한 기분을 측정	11
충동통제			분노나 다른 충동적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얼마나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	8	.61
정신병리			괴상한 사고, 혼돈감, 과대망상, 환각을 측정	11	.74
사 회 적 발 달		가족관계	가족관계의 질에 관한 청소년의 지각을 평가	17	.89
		친구관계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한 태도와 만족, 친구사귀는 능력과 같은 사회적 만족도와 유능감을 측정	10	.85
		대처능력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현재 또는 예견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유능감을 평가	10	.81
		신체상	자신의 신체와 신체발달 상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	11	.69
		적응력	자신의 능력에 대해 또는 주변상황의 조절 능력에 대한 우울감을 측정	10	.70

(OSIQ)를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Peterse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와 Jarcho(1984)이 제작한 자기상 척도(Self-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ce: SIQYA)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9개 하위영역의 98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춘재(1996), 이춘재와 광금주(1994) 등이 9개의 하위 요인 중 직업교육목표 하위요인의 문항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이질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하위요인과 문항을 제외시켜 8개 하위요인의 총 88문항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심리적 발달 영역과 사회적 발달 영역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요인은 심리적 발달 영역에 속하고, 가족관계, 친구관계, 대처능력, 신체상과 적응력의 5가지 요인은 사회적 발달 영역에 포함된다. 이때 부적인 방향의 문항내용은 점수를 역순으로 계산하여 각 문항의 평정치를 합한 점수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에서 긍정적인 발달을 의미한다.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K시와 J군의 주로 직업군인 자녀가 재학 중인 4개 중·고등학교에 400명의 직업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2011년 4월 26부터 5월 6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었다. 각반 교실에서 연구자와 담임교사의 설명 하에 아

버지가 직업군인인 경우 해당하는 연구대상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졌으며, 교실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실시한 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26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먼저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부모 양육행동이 직업군인의 자녀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기상을 통한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시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나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할만한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COLLIN을 사용하여 eigen value, condition number와 variance proportion의 수치를 알아본 결과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독립변인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변인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직업군인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직업군인의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다. 직업군인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행동은 외로움에 대해 2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직업군인 자녀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양육행동은 불신($\beta=.37$, $p<.001$), 가르침($\beta=-.18$, $p<.01$)과 관심($\beta=-.15$, $p<.01$)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불신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르침과 관심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업군인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직업군인의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표 2.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외로움 β
부 양육행동	불신	.37***
	존중	-.01
	가르침	-.18**
	관심	-.15**
R^2		.25
F		23.56***

** $p<.01$, *** $p<.001$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외로움 β
모 양육행동	불신	.34***
	존중	-.11
	가르침	-.29***
	관심	-.17*
R^2		.32
F		32.40***

* $p<.05$, *** $p<.001$

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다.

직업군인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외로움에 대해 3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직업군인 자녀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불신($\beta=.34$, $p<.001$), 가르침($\beta=-.29$, $p<.001$)과 관심($\beta=-.17$, $p<.05$)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불신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르침과 관심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업군인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기상에 미치는 영향

직업군인의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기상으로 본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 상태'에 대해 2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표 4.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자기상							
		심리적 발달			사회적 발달				
		정서 상태 β	충동 통제 β	정신 병리 β	가족 관계 β	친구 관계 β	대처 능력 β	신체상 β	적응력 β
부 양육 행동	불신	-.35***	-.36***	-.40***	-.54***	-.14	-.26***	-.17*	-.06
	존중	.11	-.08	.00	.14*	.14	.17*	.21*	.24**
	가르침	.05	-.03	-.02	.16**	.08	.01	.03	.12
	관심	.12*	.00	.16**	.13**	.11	.15*	.02	.15*
R^2		.25	.10	.21	.56	.13	.22	.13	.20
F		23.77***	8.08***	19.53***	90.39***	10.47***	20.64***	11.31***	17.73***

* $p < .05$, ** $p < .01$, *** $p < .001$

불신($\beta = -.35$, $p < .001$)과 관심($\beta = .12$, $p < .05$)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불신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정서 상태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심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정서 상태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충동통제’에 대해 1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충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양육행동은 불신($\beta = -.36$, $p < .001$)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불신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충동통제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정신병리’에 대해 2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정신병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은 불신($\beta = -.40$, $p < .001$)과 관심($\beta = .16$, $p < .01$)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불신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정신병리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관심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정신병리가 낮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가족관계’에 대해

5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가족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은 불신($\beta = -.54$, $p < .001$), 존중($\beta = .14$, $p < .05$), 가르침($\beta = .16$, $p < .01$), 관심($\beta = .13$, $p < .01$)으로 나타났다. 불신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가족관계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존중 및 가르침과 관심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가족관계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친구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대처능력’에 대해 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대처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은 불신($\beta = -.26$, $p < .001$), 존중($\beta = .17$, $p < .05$), 관심($\beta = .15$, $p < .05$)으로 불신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대처능력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존중과 관심이 높다고 느낄수록 대처능력에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일곱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신체상’에 대해 1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신체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양육행동은 불신($\beta=-.17, p<.05$)과 존중($\beta=.21, p<.05$)으로 나타났다. 불신행동이 높다고 느낄수록 신체상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존중행동이 높다고 느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적응력’에 대해 2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적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은 존중($\beta=.24, p<.01$)과 관심($\beta=.15, p<.05$)으로 존중과 관심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적응력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 직업군인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기상에 미치는 영향

직업군인의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기상으로 본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 상태’에 대해 2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불신($\beta=-.34, p<.001$)과 관심($\beta=.23, p<.01$)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불신행동이 높다고 느낄수록 정서 상태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심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정서 상태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충동통제’에 대해 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직업군인 자녀의 충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은 불신($\beta=-.21, p<.01$)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불신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충동통제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정신병리’에 대해 1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정신병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은 불신($\beta=-.43, p<.001$)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불신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정신병리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가족관계’에 대해 6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가족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불신($\beta=-.50, p<.001$), 가르침($\beta=.10, p<.05$)과 관심($\beta=.36, p<.001$)으로 나타났다. 불신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가족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르침과 관심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가족관계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친구관계’에 대해 1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친구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은 불신($\beta=-.30, p<.001$), 가르침($\beta=.18, p<.05$)과 관심($\beta=.16, p<.05$)으로 어머니의 불신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친구관계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르침과 관심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친구관계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대처능력’에 대해 2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대처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은 불신($\beta=-.36, p<.001$)으로 불신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대처능력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곱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신체상’에 대해 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신체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은 불신($\beta=-.21, p<.01$)과 관심($\beta=.17, p<.05$) 행동으로 어머니의 불신행동이 높다고 느낄수록 신체상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심행동이 높다고 느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

표 5.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자기상							
		심리적 발달			사회적 발달				
		정서 상태 β	충동 통제 β	정신 병리 β	가족 관계 β	친구 관계 β	대처 능력 β	신체상 β	적응력 β
모 양육 행동	불신	-.34***	-.21**	-.43***	-.50***	-.30***	-.36***	-.21**	-.15*
	존중	-.07	.07	-.11	.03	-.12	.02	-.03	-.03
	가르침	.10	-.05	-.01	.10*	.18*	.05	-.02	.15*
	관심	.23**	.05	.12	.36***	.16*	.14	.17*	.33***
R^2		.25	.07	.19	.66	.18	.23	.09	.26
F		23.63***	5.63***	16.07***	134.88***	15.67***	21.20***	7.15***	24.19***

* $p < .05$, ** $p < .01$, *** $p < .001$

머니의 양육행동은 ‘적응력’에 대해 2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신체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으로 불신($\beta = -.15$, $p < .05$), 가르침($\beta = .15$, $p < .05$)과 관심($\beta = .33$, $p < .001$)으로 불신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적응력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르침과 관심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직업군인의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외로움과 자기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군인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자녀의 외

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녀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신행동은 자녀에게 외로움을 더 느끼도록 하였고, 가르침과 관심은 군인 자녀로 하여금 외로움을 덜 느끼도록 하였다. 불신행동은 외로움에 취약한 군인 자녀에게 매우 부정적인 부모 양육태도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가르침 및 관심과 같은 양육행동은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Sabatelli와 Anderson(1991)과 Hojat(1982) 등이 불만족스러운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적대적이고 과잉통제 및 제한이 높은 부모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이성수, 2001; 우민정, 박인전, 2001) 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군인 자녀는 전학경험이 적고 아버지와 분리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임익호, 2009).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의 대부분이 2회 이상의 전학경험이 있고, 군인가정의 30.3%가 현재 아버지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인 것을 고려해볼 때, 지각된 부모의 불신행동은 또래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외로움을 지각하는데 있어 일반인 가정의 자녀보다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한편, 임연진과 나유미(2003), 도현심(1996)은 청소년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애정을 표시하는 온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외로움을 덜 경험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청소년이 부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녀의 외로움은 감소하고, 청소년기 자녀가 필요할 경우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때 외로움을 적게 느낀다는(김정운, 김영희 2009; Hojat, 1982) 것과 본 연구결과와는 매우 유사하다. 본 연구의 부모 가르침 행동과 유사하게 부모 감독행동에 있어 Wilson(1987)은 적절한 부모 감독행동이 주위 환경의 부적절한 영향을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잦은 이사와 전학 및 아버지와 분리 등으로 외로움에 취약한 직업군인 자녀의 외로움에 대해 긍정적인 부모 양육행동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직업군인 자녀들에게 가르침 및 관심과 같은 양육행동은 사회적 외로움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직업군인 자녀가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

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다 수용적이며, 관심을 보여주고 적절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직업군인의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기상으로 본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불신행동은 심리적 발달의 모든 하위요인인 정서 상태, 충동통제와 정신병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아버지의 관심행동은 심리적 발달 중 우울을 측정하는 정서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불신행동은 자녀를 못 미더워하고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양육태도로서(임정하, 정옥분, 2004), 이는 Baumrind(1978)가 제시한 통제적 양육태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데 이은경과 박성연(2010)은 자녀가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죄의식을 유발하는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청소년은 우울성향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해 우울을 느끼면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장미경(2010)은 부모의 덜 애정적 태도는 우울을 높여주고 애정적 태도는 우울을 낮춰준다고 하였고, 손석한 등(2001)은 아버지의 높은 과잉간섭과 낮은 애정 및 방임 등 불신과 유사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 불안, 위축과 신체화 등의 내재화문제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직업군인 가족의 양육태도를 연구한 오기택(2000)은 아버지가 자녀에 통제적이고 거부적일수록 일반가정 자녀들보다 군인가족 자녀들은 비행과 공격성 같은 외부로 표출되는 문제성향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불안수준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 내적인 문제 성향이 심화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민정(2008)은 직업군인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적대적, 비성취적, 비합리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많아지고, 우울 및 불안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유영달과 이은지(2010), 임정하(2006)의 연구에서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심리적 안녕감을 결정하는 요소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아버지의 관심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등 심리적 발달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본 연구결과는 일맥상통한다. 또한 자기상의 사회적 발달 영역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불신행동은 가족관계, 대처능력과 신체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존중 행동은 친구관계를 제외한 가족관계, 대처능력, 신체상, 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가르침 행동은 가족관계, 친구관계와 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관심행동은 가족관계, 대처능력과 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임정하(2006)가 아버지의 관심행동과 가르침행동은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송요현과 현온강(2006)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교육과 자녀부양에 참여하며 역할수행에 긍정적인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신뢰성, 지도성, 안정성과 사교성 등 사회성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부모의 온정과 긍정적 표현성이

청소년의 비행과 공격성 등의 외현화 증상에 대해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Eisenberg et al, 2005; 이주리, 2008)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직업군인 자녀의 친구관계를 연구한 송규탁(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 양육태도가 엄격하지 않고 자율적일수록 친구관계 등이 좋다고 하였다. 따라서 직업군인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불신행동은 자기상으로 본 다양한 심리 사회적 발달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군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믿음을 갖고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을수록 자기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버지의 관심 행동은 자기상으로 본 다양한 심리 사회적 발달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적절한 양육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존중과 가르침 행동도 군인 자녀의 사회적 발달 영역에 대한 자기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아버지의 존중 행동은 군인 자녀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발달에 매우 의미 있는 양육행동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직업군인 자녀의 자기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불신행동은 자기상으로 본 심리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 영역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불신행동은 아버지 불신행동 보다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발달과 더불어 더 다양한 사회적 발달영역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은경과 박성연(2010)은 통제적 부모의 양육행동에 있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였는데,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는 아버지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나라 전통적인 부모관인 엄부자모(嚴父慈母)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데서 그 근거를 해석하였다. 즉 청소년기 자녀는 아버지의 통제적인 양육행동에 대해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행동보다 더 당연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Chao(1994)의 연구에서와 같이 권위적이고 엄한 아버지에게 크게 손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오기택(2000)은 직업군인 가족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는데,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어머니 양육태도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애정과 자원을 중시하는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군인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오동재, 전성일 및 장환일(1993)은 청소년에게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 집단이 자녀의 우울, 공포불안, 적대감과 신체화 등 모든 정신병리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은경과 박성연(2010)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청소년이 우울성향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해 우울을 느끼면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손석한 등(2001)이 어머니의 높은 과잉간섭과 낮은 애정 및 방임 등 불신행동과 유사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우울, 불안, 위축과 신체화 등의 내재화문제를 높인다고 한 것과 본 연구결과는 같은 맥락이다. 더불

어 허묘연(1999)이 어머니의 거부와 통제가 높고 감정적 지지가 낮으면, 높은 대인관계 불안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것 또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반면, 어머니의 가르침행동은 가족관계, 친구관계와 적응력 등 사회적 발달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관심행동은 우울을 측정하는 정서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관심행동은 대처능력을 제외한 가족관계, 친구관계, 신체상, 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미경(2010)이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가 높은 양육행동은 우울을 낮추는다고 하였고, 임정하(2006)가 어머니의 관심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가르침과 관심행동은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된다. 따라서 군인 자녀에게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은 태도를 지니는 것이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정하(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서상태와 같은 심리적 특성에는 부모의 관심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양육행동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어머니의 적절한 가르침과 관심행동은 군인 자녀의 대인관계 및 적응력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임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잦은 이동의 어려움과 열악한 양육환경에서 외로움에 취약한 직업군인 아버지를 둔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외로움을 해소하고 자아정체감의 형성기인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자기상을

형성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부모 양육행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업군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부모역할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각된 직업군인 가정의 양육행동은 청소년기 자녀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송규탁(2009), 이민정(2008)과 임익호(2009) 등의 연구에서처럼 직업군인 자녀의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일반 가정의 부모 애착관계보다 좋으며, 군인 자녀의 잦은 전학과 열악한 양육 및 교육환경에서도 부모 및 가족관계는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직업적 특수성으로 잦은 전학을 경험하여야 하는 군인 자녀를 위한 부모 자녀관계에서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통제적이고 규율적인 양육태도를 수용적이고 관심과 적절한 가르침이 제공되는 양육태도로 수정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부모교육이 실시되기 바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보다 더 의미 있는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군인 자녀뿐 아니라 잦은 이사와 남편과의 분리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지니는 군인 아내를 위한 부모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군 당국과 학교에서도 직업군인의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직업군인의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는 정서안정 및 사회성 증진 등을 위한 다각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후속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외로움과 자기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에 있어 직업군인 자녀가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나누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앞서 서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역할 부재는 어머니의 심리적 부담과 양육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직업군인 아버지가 부재되어 있는 가정과 동거하는 가정에서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이 직업군인 자녀의 발달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대상은 직업군인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외로움과 자기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한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일반인 가정의 양육행동과 군인가정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지 그 영향력을 탐색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비교적 관점으로 두 가정의 양육행동과 그에 따른 청소년기 발달 특성에 차이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중, 고등학교의 학교급에 따라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및 지각된 양육행동은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그 부모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2개 지역 4개교의 직업군인 가정의 중, 고등학생 자녀로 표집하였다. 이는 직업군인 자녀를 다양하게 표집하지 못한 제한점을 지니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전후방지역 등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표집하

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영희, 조민자, 임성우 (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6(4), 31-42.
- 강학성 (1999). 군인자녀의 전학, 학교적응, 학업성취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오숙, 문성호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1), 31-46.
- 권지은 (1998).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1992). 청소년 고독감과 대인관계 만족도 및 반응행동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식 (1999).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음주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39, 10-22.
- 김정운, 김영희 (2009).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287-2301.
- 김현주, 홍두승 (1994). 한국의 군인가족: 고립과 적응을 중심으로. 전략논총, 2, 303-355.
- 도현심 (1996).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33-49.
- 박선영, 도현심 (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박영배 (1991). 가정환경에 따른 군인자녀의 행동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아 (2005). 군인자녀의 친구관계와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학회, 40(4), 605-615.
- 송규탁 (2009). 군인 자녀와 일반인 자녀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충남 G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요현, 현온강 (2006).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성. 아동학회지, 27(5), 19-34.
- 안민국 (1983). 군인자녀 교육실태의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순 (1995). 군 복지와 자녀교육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기택 (2000). 군인가족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896-903.
- 우민정, 박인전 (2001). 초기 부모자녀 결합형태 및 가족기능과 아동의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 6(2), 25-43.
- 유성경 (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

- 발을 위한 기초연구-비행수준별·유형별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영달, 이은지 (2010).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자기분화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91-115.
- 이민정 (2008). 군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정서상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수 (200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외로움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열 (2002). 군인자녀의 전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미 (1994). 청소년 스트레스와 인지적 평가에 관한 연구: 광주직할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박성연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87-106.
- 이재평, 정채하, 정희성, 김영규, 박중석, 박성범, 김상우, 장원초, 김은목, 최돈규 (2008). 직업군인론. 경기: 글로벌.
- 이주리 (2008).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탐색. 인간발달연구, 15(2), 87-102.
- 이지향, 김광웅 (2005). 인터넷 사용량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변인 탐색. 청소년상담연구, 13(2), 15-32.
- 이춘재 (1996).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 II: 인문계와 특수목적고 고등학생들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154-166.
- 이춘재, 광금주 (1994).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I: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119-135.
- 임연진, 나유미 (2003).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연구, 5(2), 61-69.
- 임익호 (2009). 직업군인의 이주 빈도와 가정환경이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하 (2006).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발달특성과의 관계-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1), 135-151.
- 임정하, 정옥분 (2004).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1(4), 55-73.
- 장미경 (2010).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방식 및 우울과 부모가 지각한 청소년 자녀의 게임중독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47-66.
- 정옥분 (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영희 (1999).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 도시와 농촌 비교 -. 사회과학논집, 9, 303-316.
- 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양식 및 문제행동에서

- 자기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1(3), 385-402.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ker, S., Fagen, S., Fisher, E., Janda, E., & Cove, L. (1967). Impact of father absence on personality factors of childre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7, 269-282.
- Baumrind, D. (1978). Reciproc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parent child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34, 179-189.
- Brage, D., & Meredith, W. (1993). Correlates of loneliness among midwestern adolescents. *Addesence*, 28, 685-694.
- Brennan, T., & Auslander, N. (1979). *Adolescent loneliness: An exploratory stud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predispositions and theory*(vol. 1.). Bethesda, MD: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Juvenile Problem Division.
- Chao, R.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te, C., Fabes, R. A., & Liew, J. (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5), 1055-1071.
- Gonzalez, V. (1970). *Psychiatry and the Army Brat*. Springfield, IL; C. C. Thomas.
- Hojat, M. (1982). Loneliness as a function of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 *Journal of psychology*, 112, 129-133.
- Jong-Gierveld, J. (1987). Developing and testing a model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9-128.
- Kagan, J. (1971). *Personality development*. N. Y. Harcourt Brace Jovanovich.
- Lyons, J. B. (2004). *Family systems,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nd loneliness: A test of mediating and moderating models*. N. Y.: New York University Press.
- Medora, N., & Woodward, J. (1986). Loneliness among adolescent college students at a midwestern university. *Addesence*, 21, 391-402.
- Moore, D. & Schultz, N. R. (1983). Loneliness and adolescence: Correlates attribution and coping. *Journal of Youth and Addesence*, 12, 95-100.
- Ohanessian, C. M., Lerner, R. M., Lerner, J. V. & von Eye, A. (1996).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perceptions of the self and emotional adjustment during early adolescence. *Family and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25, 159-183.
- Peplau, L. A., & Perlman, D. (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351-378). NY: Wiley & Sons.
- Petersen, A. C., Schulenberg, J. E., Abramowitz, R. H., Offer, D., & Jarcho, H. D. (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SIQY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2), 93-111.
- Rew, L. (2001). Relationships of sexual abuse, connectedness, and loneliness to perceived well-being in homeless youth, *JSPN*, 7(2), 51-63.
- Rice, F. P. (2001). 청소년 심리학.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본 발간일, 1999)
- Rokach, A. (2001). Criminal offense type and cause of lonelines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5(3), 277-291.
- Russell, D., & Peplau, L. A. (1978).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290-294.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abatelli, R. M., & Anderson, S. A. (1991). Family system dynamic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0, 363-369.
- Stewart, W. (2004). The role of perceived loneliness and isolation in the relapse from recovery in patients with anorexia and bulimia nervosa.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2(2), 185-362.
-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MA: MIT Press.
- Wilson, H. (1987). Parental supervision re-examined.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7, 275-301.

1차 원고접수 : 2011. 10. 10

수정원고접수 : 2011. 11. 15

최종게재결정 : 2011. 12. 2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 as perceived by the children of professional soldier going through adolescence, in terms of their loneliness and self-image

Kim, Joengeun

Army Infantry School

Park, Huihyu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tter understand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 as perceived by the children of professional soldiers going through adolescence in terms of both their loneliness and their psycho-social development in relation to their self-image.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consisted of 32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also the children of professional soldiers.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s of both simple-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The levels of distrust behavior of fathers and mothers resulted in increased levels of adolescent loneliness, and had a negative influence upon the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social development in terms of their self-image. However, their levels of attention and participation in lessons tended to reduce this. The attention received by and recognized by the children appear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emotional status. The family relationship and degree of adjustment was also positively affected by the parents' levels of attention. With the exception of peer relationships, the degree of fathers' respect behavior directed to their children tended to improve their social development factors in terms of self-image. In conclusion, the parenting behavior of professional soldiers may affect the loneliness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in terms of self-image of their children during adolescence, while their ego-identity is being formed.

Key words : professional soldier's children, parenting behavior, loneliness, self-image